



주간 통일정세

2007-0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6자회담 관련 2. 대북한 관련 3. 주변국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북한 수해 및 경제 관련

<새로운 수해상황과 수해복구 동향>

- 12호 태풍 ‘위파’ 피해 (9/20, 조선중앙통신)
 - “지난 18일부터 태풍 12호에 의해 강한 폭우가 연일 내리고 있다”며 “서해안의 일부 지방에 내린 비는 지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내린 강수량의 거의 50%에 달하고 있다”고 전하였으며,
 - 이들 지역은 대부분 지난달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어서 추가 피해가 예상되며 여러 협동농장의 농경지 수백 ha가 침수, 수확을 앞둔 곡식이 수해를 입었다며 “장마철 무더기비(집중호우)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또 다시 내린 폭우로 많은 농경지가 재침수돼 논벼를 비롯한 알곡작물의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삼천·신천군 7천여ha 농경지 침수사실 보도(9/22, 조선중앙TV)
 - “지난 18~20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제12호 태풍 ‘위파’)은 여러 지역들에 예상 밖의 커다란 피해를 다시금 가져왔다”면서 “삼천군과 신천군을 비롯한 황남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450mm 이상의 무더기비(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보도
- 수해 토지 44% 복구(9/17, 조선중앙방송)
 - 북한 내각 국토환경보호성 박정순 부국장은 17일 조선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침수됐던 양묘장들이 100% 원상 복구됐고 매몰된 토지는 44%, 산사태로 파괴된 도로는 66.5%, 제방(둑)은 50% 복구되는 등 산림, 도로, 강하천 복구에서 성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
- 수해복구 동향
 - 임업성, 큰물피해 복구와 겨울철 통나무생산 추진(9/26,평양방송)
 - 강원도전력부문, 큰물피해 복구사업(9/26,평양방송)
 - 평양철도국 처장, 철도 정상화복구 전투반향(9/26,조선중앙방송)
 - ‘전력·석탄 생산의 정상화는 큰물피해복구에 달려있다’ 수재복구 촉구(9/27,조선중앙방송)
 - 평남 성천군, 큰물피해 복구주력(9/27,평양방송)
 - 황남 장연군, 큰물피해 복구주력(9/27,조선중앙방송)
- 조선 적십자회, 전염병 예방 의약품 부족 심각사실 밝힘(9/21, 조선신보)
 -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북한의 수해 후 전염병 예방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약품 부족과 의료시설 파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피해 지역에서 전염병이 만연되는 현상”이라며 “상·하수도 설비들이 파괴돼 오염된 물에 의해 설사증, 피부병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날씨가 추워져 감기의 유행도 예견된다”, “이런 문제에는 보건기관들이 대처해야 하는데 보건기관 자체가 많은 피해를 입어 562개의 병원이 파괴됐고 2천100여개 진료소들에서 손실이 있었다”, “현지에 나가 보았는데 약품 창고들이 물에 침수돼 약들은 쓸 수 없게 됐고 환자 진료기록도 물과 흙에 젖어 도무지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다.”, “보건기관은 한심한 상태”라고 밝힘(조선적십자회의 김은철 부서기장)

- 세계 인민들의 반향을 통해 ‘아리랑’ 선전(9/27,평양방송)
 - 세상 사람들은 ‘아리랑’을 세계적인 대결작, 인류문화예술의 최고결정 등으로 높이 찬양하고 있다고 선전
- 대미 비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조국통일의 장애’(9/26,평양방송)
 -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지배와 간섭의 마수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함.
 - ※ ‘미국은 남조선 경제의 파괴자, 약탈자’(9/27,조선중앙방송)
- 황해북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계급교양과 참관사업 조직(9/27,평양방송)
- 北, 김일성의 함경북도 현지도 60돌 기념 보고회 진행-홍석형 보고(9/28,조선중앙방송)

<경제관련>

- 식량문제 지방 자체해결 독려(9/12, 민주조선; 9/23, 연합)
 - “도·시·군들에서 위(중앙)만 쳐다보면서 자체로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지 않으면 응당 거둘 수 있는 성과도 거둘 수 없다”,
 - “도·시·군들에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질 좋은 갖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며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식량문제 관련 지방 자체해결의 중요성을 강조
-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자력갱생 정신 강조(9/23, 노동신문)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부강조국 건설의 추동력, 선군(先軍)혁명 위업의 원동력”이라하면서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며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투쟁기질”이며 “나라를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더욱 부강하게 하려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사실을 강조

- 에너지난 타개를 위한 발전소 건설·보수 총력(9/20, 조선중앙방송)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화력발전소들의 전력 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전력난 해결을 위해 발전소 건설과 보수·정비작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나.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추석 맞아 조상묘에 화환 전달 보도(9/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동지께서 보낸 화환이 김보현 선생과 리보익 여사(김 위원장 증조부모)의 묘, 김형직 선생과 강반석 여사(김 위원장의 조부모)의 묘 앞에 놓여있었다”고 보도
- 김정일의 러 무용단 공연관람(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연 중인 러시아 모이세예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의 공연을 관람했으며, 최태복,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박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현철해 리명수 인민군 대장 등이 동행하였음을 밝힘
 - 김정일 위원장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 소식은 9/4 제963군부대 군인 가족예술소조 공연관람 보도 후 19일 만에 나온 것이며 지난달에는 12차례 걸쳐 함경도 지역의 산업시설 등을 집중 시찰했고 이달 1~2일에도 자강도의 공장, 기업소를 방문

다. 사상교양 강조

- 北청년단체, 사상, 문화 침투 분쇄 결의(9/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청년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20일, 함흥에서 제8기 35차 전원회의에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 침투”에 강력히 맞서기로 결의, 회의 참석자들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청년들에게 미치는 해독성과 엄중성”에 대해 언급하고 “(사상·문화 침투에 대해) 청년동맹 조직들이 반세계급전선의 제일 기수가 돼 적들의 비열한 책동을 혁명적 공세로 짓 부셔 버릴 데 대해 지적했다”고 보도
- ‘남한 영화보기’ 차단을 위한 단속 강화(9/19, 연합)
 - 북한은 청소년들 사이에 한국 영화보기가 유행하는 것에 경계심을 갖고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포고문이 나온 후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역적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 중
- 사상교육 강화를 위한 사상교양 강조 (9/19,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



사이트)

- 사상을 외면하면 하루아침에 사회주의가 붕괴된다며 ‘사상사업 홀시는 사회주의 붕괴의 요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라. 기타

- 수해와 관계없이 예년수준의 군사훈련 실시(9/29 연합)
 - 김관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8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합참 창설 제44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 10여 년간 최악의 경제상황 하에서도 선군정치의 기치하에 군사력 증가를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최근에도 대규모 수해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군사훈련을 했다”고 밝혔음
- 아리랑공연 계속 진행(9/23, 조선중앙TV)
 - “내외의 커다란 관심 속에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계속 진행되게 된다”면서 공연은 매일 오후 8시에 시작한다고 밝히며, “아리랑은 아버지 수령님(김일성 주석)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된 혁명대오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선전
- 고구려 유적 고산동우물 소개(9/23, 평양방송)
- 만수대 창작사 베이징에 미술관 개관(9/23, 연합)
- 한약 농축액 표준화 추진(9/23, 조선중앙방송)
- 세계유도 4연패 계순희 대대적 환영(9/22, 조선중앙방송)
- ‘자원절약’ 교육용 과학영화 적극 보급(9/19, 조선중앙통신)

2. 대외정세

가. 핵문제 관련

- 북한·시리아 핵 거래 의혹 부인(9/27, 조선일보)
 -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우리와 시리아와의 핵 거래설은 미친 놈들이 만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를 부인
- 핵보유국으로서 핵 이전 불허(9/18, 외무성대변인)



- 외무성 대변인, 18일 “(시리아와) 비밀 핵협조설은 6자회담과 조(북)·미관계의 전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불순세력들이 또 다시 꾸며낸 서툰 음모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미 2006년 10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는 데 대해 엄숙히 천명했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를 통해서 북한 스스로가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됨.
- **우라늄 농축 자재 3국서 조달 인정(9/17, 교도통신)**
 - 북한이 핵문제의 초점인 우라늄 농축 의혹과 관련, 농축에 사용하는 원심분리기용 관련 자재인 알루미늄 관을 제3국에서 조달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
 - 북한이 이달 초 제네바에서 열린 6자회담 북미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알루미늄 관을 제3국에서 조달했음을 인정했다고 언급
- **김계관, 플루토늄량 공개, 입증 허용 의지를 표명(9/30 연합)**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김 부상이 이번 회기에 나와 만나 신고를 자세히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면서 “플루토늄을 언제 얼마나 생산했고 어디어 썼으며 재고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다 밝히고 검증 활동도 허용하겠다는 (김부상의) 뜻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밝혔음

나. 북·미관련

- **미국의 이라크 전 개입 비난(9/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패배자의 자화자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시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라크의 안정화 진전에 따라 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시켰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은 “이라크의 비극적인 현실을 유치하게 왜곡하는 자화자찬 놀음”이라고 비난
- **장웅 IOC위원, 시카고 올림픽 유치 지원(9/22, 연합; 자유아시아방송(RFA))**
 - 10월 미국 순회공연을 갖는 북한 태권도시범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할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시카고 올림픽 유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할 계획이라고 전언
- **美,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 비호 비난(9/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 제목의 글에서 “이스라엘 군용기의 시리아 영공침범과 폭탄투하는 명백히 시리아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행위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행위를 비호,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

- 美, 부당한 핵정책으로 핵전쟁 위험 증대(9/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핵전파방지체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논평에서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핵대국의 지위를 악용해 비핵국가들을 위협 공갈하며 전횡과 강권을 일삼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핵무장화 계획을 적극 조장시키며 협력해 왔으며...핵무기의 기본원료인 고농축우라늄을 넘겨주어 핵무기 개발을 추동했다”며 “일부 나라들의 핵무기 계획을 비호·조장시킴으로써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을 몰아오고 있다”고 비난.

다. 북·일관련

- 대일 비난 자세 견지(9/25,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이날 ‘일본은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은 핵·납치문제를 구실로 국내외에서 반(反)공화국(반북) 대결광기를 부리며 조(북)·일 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국면으로 몰아갔다”고 비난
 -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13일로 기한이 끝나는 대북 경제제재 기한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내용을 소개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또 하나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 선박 및 인원들의 왕래와 물자 수출입을 전면 차단한 것도 일본이고 총련(조총련)을 말살하기 위해 입에 계거품을 물고 달려든 것도 일본”이라며 “일본의 사고와 행동은 온통 비이성적이고 빼뺀어져 있다”고 성토
- 아베 사임을 대북적대정책 결과와 연결하면서 비난 (9/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급격한 혼란으로 뒤흔들리는 일본정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베 총리 집권기간 대북적대정책이 극도에 달했다며 그 사례로 ▲이미 ‘해결’된 납치문제와 대북 위협론 주장 ▲대북 정치·경제적 압력과 제재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 대한 탄압 등을 꼽은 뒤 결국 이같은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와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

라. 북·중관련

- 2010년 상하이엑스포 참가(9/23, 연합)
 - 2010년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되는 세계박람회(EXPO)에 참가할 계획임을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가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밝혔다고 보도



※ 상하이엑스포는 2010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개최

- 김영일 부상 하얼빈 방문(9/21, 연합)
 - 9월 18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하얼빈(哈爾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 현지언론은 김 부상의 하얼빈 방문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양측은 무역,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보도
- 김영일-우다웨이 베이징서 회동(9/20, 연합)
 -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개선 방안 등을 논의,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영일 부상이 지난 18일 우다웨이 부부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두 사람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자는 희망을 표시했다”고 언급, 장 대변인은 “김영일 부상은 현재 중국 지방을 시찰하고 있다”고 소개

마. 기타 대외관계

- 北-도미니카공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9/26, 조선중앙텔레비전)
- 北-시리아 집권당 회담, 관심사 의견교환(9/21,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시리아의 핵거래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 집권당 간 회담이 21일 평양에서 개최
- 北-스와질랜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9/21, 조선중앙TV)
- 北 최수현, 제62차 유엔총회 참가(9/21, 연합)
 - 최수현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제62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평양을 출발, 9월 19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된 이번 총회는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 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총회로 기후변화와 각 지역 분쟁 162개 의제가 다뤄질 예정

3. 대남정세

가. 남북관계

- ‘민족대단결’ 강조(9/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6·15 통일시대의 위대한 민족대단결 강령’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민족 성원들은 계급·계층의 차이, 정견·신앙 등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서로의 차이점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하나로 굳게 단결할 수 있다”고 강조



나. 남북정상회담 관련

- 김정일, 노대통령 친서에 감사(9/22,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준비 차 방북한 남측 선발대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북한 수해에 관한 위문서한을 보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간접 전달, “북측이 이관세 선발대 단장에게 ‘대통령께서 위문친서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힘

다. 남북교류

- 대한상의, 남북 민간경제협력 창구 개설 추진(9/27, 연합)
 -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북한의 투자환경 및 애로에 관한 정보교환과 남북기업간 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할 ‘남북경협포럼(가칭)’의 출범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조선상업회의소와 업무협력약정(MOU)을 맺고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6자회담 관련

- 힐, “북핵 불능화·신고 연말까지 성사 기대”(9/26)
 -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핵 불능화와 신고가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개최(9/27~30, 베이징)
 - 6개국은 개막식 이전에 남북, 한·미, 중·러, 중·일 간 양자협의를 잇달아 갖고 이번 회담의 목표치를 조율했음
 - 각국은 8~9월에 걸쳐 개최한 5개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각 그룹 의장들로부터 청취했음.
 - 6개국은 북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로드맵 작성을 위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 북한은 북구에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낮은 단계의 불능화를 선호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가급적 복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높은 단계의 불능화를 추구하였음.



- 6자회담 참가국들은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으나 각국 정부에 보고한 뒤 그 문서의 내용을 이틀 후 발표하기로 했음.

● 『조선신보』, “핵시설 불능화, 미 변해야 가능”(9/27)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와 관련,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불능화) 미국의 적대시정책 전환이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즉 핵무기 제조능력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서 취하게 될 조치다”고 주장했다.

● 북·미, 제네바서 테러지원국 해제시기 합의

-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미가 제네바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시기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 문제가 “지금 실질적인 이슈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9/29).
- 그러나 북·미가 합의한 시기가 특정 시간(연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불능화 이행 상황 등에 연동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힐 차관보, “불능화는 재가동에 1년 안팎 걸리는 조치”(9/29)

-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차관보는 “핵시설 불능화는 플루토늄 생산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이며, 시설 재가동에 1년 안팎은 걸리게 하는 조치여야 한다”고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이 이날 지시한 대북 중유지원이 10월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 대북한 관련

가. 미·북 관계

● 미 전문가들, “북·시리아 커넥션 대상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 주장

-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9/6)으로 불거진 북·시리아 핵커넥션 의혹과 관련,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리아에게 제공한 것은 핵물질이나 핵시설이 아니라, 미사일이거나 관련 부품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제기하였음.
-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9/18)에서 “문제는 북한이 시리아와 핵협력을 했거나 미사일협력을 했다는 의혹”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북·시리아 핵커넥션의 대상이 핵이 아니라, 미사일일 수 있음을 시사했음.
- 미국내 정가소식지인 『넬슨리포트』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에서 공격했던 목표물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이거나 미사일 관련부품이라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음(9/20).



- 시리아·북, “미 핵협력 주장은 날조”(9/18)
 - 시리아의 부사니아 사반 외무장관은 레바논 방송 알-마나르와의 인터뷰에서 “(핵 협력설은) 가치도 없고, 사실도 아닌 날조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비밀 핵협조 설은 6자회담과 북·미관계의 전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불순세력들이 또 다시 꾸며낸 서툰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버시바우, “북·미 관계개선 미국 의지 확고해”(9/18)
 - 미 대사관측 요청에 따라 버시바우 대사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예방 하였음.
 - 버시바우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하고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비핵화 결단을 내리도록 한국 정부도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음.
 - 또 “남북정상회담이 확고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시, “북, 6자회담 성공 원하면 확산해선 안돼”(9/20)
 - 부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기술을 시리아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 성공을 원한다면 무기 확산을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음.

- 미 공화당, 납북자 해결전 북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금지법안 추진
 - 『교도통신』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들을 모두 석방할 때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미 하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음(9/22).
 -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물질 및 기술의 이전을 이란과 시리아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음을 보장하지 않거나 북한이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핵을 항구적으로 폐기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교도통신』은 하지만 이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하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 영 『선데이 타임스』, “이스라엘, 시리아 기습침투로 북한산 핵물질 확보”(9/23)
 - 영국의 『더 타임스』일요판인 『선데이 타임스』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시리아 북부 지역을 폭격(9/6)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정예부대가 미리 이 지역의 비밀 군기지에 침투해 북한산 핵물질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음.

- 핵물질 확인후 시리아 폭격을 감행하여 북한인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설도 보도했음.

● 라이스, “북핵, 해명돼야 할 의문 많다”(9/23)

-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대 시리아 핵물질 이전 논란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해명돼야 할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음.
- 이는 미국이 베이징 북핵 6자회담(9/27~30)에서 농축우라늄과 관련한 핵물질 이전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집중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됨.

● 힐 “북, 테러지원국 해제 원하면 비핵화 이행해야”(9/25)

- 6자회담 참석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힐 차관보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 “확실히 이것(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은 북한이 매우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더 많은 비핵화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음.

● 부시, “북한은 야만정권”(9/25)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벨로루시, 시리아, 이란 등과 함께 ‘야만정권(Brutal Regime)’이라고 거듭 지칭,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자유와 인권의 확산을 위해 나선 것을 주장했다.

● 미 정부, 미사일 거래 북 기업 제재조치 발표(9/26)

- 미국 정부가 중거리미사일인 북한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이란 기업에 대해 9월 18일부터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음.
- KOMID는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회사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제품 및 장비의 주요 수출회사로 지목되고 있음.
- 북·이란이 이미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미국과의 교역이 금지되고 있어 이번 제재조치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나. 중·북 관계

● 김영일·우다웨이, 베이징에서 회동(9/18)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9/20)에서 “김영일 부상이 지난 18일 우다웨이 부부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두 사람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평가



하고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자는 희망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 또한 장 대변인은 “우 부부장은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선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 김 부상은 외무성 대표단을 이끌고 하얼빈을 방문(9/19)해 선리귀(申立國) 헤이룽장성 부성장을 만나 무역,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음.

● 중, 대북 중유 5만 톤 제공 완료(9/27)

- 중국은 대북 제2차 중유 제공분 5만 톤이 이미 모두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음.

● 중, 대북 원유수출 작년 수준 유지

- 중국이 올 2~3월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현재까지 대북 원유수출 총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해관총서 통계(9/27)에 따르면 올 1~8월 대북 원유수출 규모는 총 37만 161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음.

다. 일·북 관계

● 일 외상, 미 정부에 남북자 해결까지 북 테러지원국 잔류 요청(9/27)

-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잔류시킬 것을 요청했음.

● 6자회담 수석대표, 납치문제 등 해결 상호 노력 합의(9/28)

-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 참석중인 사사에 국장은 이날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일·북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기초로 우리는 양측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 회담중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둔 반면, 북한은 과거사 보상문제에 중점을 두었음.

● 일, 북핵 불능화 비용 일부 부담 검토(9/28)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이날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불능화를 위해 일본도 자금부담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 향후 정세를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9/29)했음.
- 이 간부는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과 불능화 작업 협력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 일 정부, 대북 제재조치 반년 연장 방침(9/30)
 -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한 경제 제재를 반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단에게 내달 13일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 경제 제재조치에 대해 “객관적인 정세상 지금 철회한다거나 완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반년 연장할 방침임을 표명했음.

라. 러·북 관계

- 러, 북에 전력수출 준비
 - 「이타르 타스」통신은 베이징을 방문중인 레오니드 드라체브스키 러시아 국영 「통합전력시스템」(UES) 경영이사회 부의장이 “러시아는 북한에 전력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음(9/18).
- 로슈코프, “6자 외무장관 회담 10월 하순께 열릴 듯”(9/24)
 -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9월 중순 정도로 예견됐던 북핵 6자 회담 당사국 외무장관 회담은 다음 달 하순께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 또한 그는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겠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핵 시설을 완전 해체하도록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있지 않다면 전체 6자 회담도 교착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음.
- 러, 11월 대북 중유 공급
 -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은 러시아가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라 오는 11월 북한에 중유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음(9/21).

마. 기타 관계

- IAEA 총회, 북핵시설 폐쇄·봉인 환영 결의 채택(9/20)
 - 지난 17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51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에 따른 북한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을 환영하는 결의를 채택했음.
 - 또한 이 결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등 북한의 추가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3. 주변국 관련

가. 한·일 관계

- 후쿠다 일 총리, 노대통령에 납치문제 협조 당부(9/28)
 - 노무현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갖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 후쿠다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잘 부탁드립니다”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음.
- 한·일 외교장관, 북핵, 북·일 관계 긴밀 협력 합의(9/29)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뉴욕에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신임 외상과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핵 문제,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송 장관은 총리 교체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타진했으며 북한 핵 문제 및 북·일 관계와 관련해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음.
 -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북한의 과거 일본인 납북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교도 통신」, 9/29).

나. 미·러 관계

- 미·러 해군, 동해서 합동군사훈련(9/28~30)
 - 양국 해군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라 페로즈(La Perouse) 해협에 걸쳐 기뢰 탐색 및 소해, 불법 선박 검거, 해난구조 훈련 등과 관련된 ‘태평양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였음.
 - 이 훈련은 1998년 이후 양국이 실시한 연합군사훈련으로서는 최대규모임.

다. 중·일 관계

- 중, 군사훈련에 일 무관들 첫 초청(9/25)
 - 중국 국방부가 선양(瀋陽)군구 훈련기지에서 인민해방군 보병사단이 실시하는 실탄 ‘용사 2007’ 군사훈련에 일본 무관들(자위대 대령과 주중 일본대사관 무관)을 처음으로 초청했음.
 - 이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민해방군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음.
- 중·일, 10월에 첫 경제각료회의 개최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중·일 양국 정부가 무역과 투자, 금융 문제 등을 협의할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의 첫 회의를 10월



하순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 (9/23)했음.

라. 중국 관계

- 「신화통신」, “남북, 적대에서 화해관계로 전환”(9/29)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망하는 기사에서 남북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 관계를 더욱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 할 것으로 전망했음.

마. 일본 관계

- 후쿠다, 일 자민당 총재(9/23) 및 총리(9/25) 당선
 - 후쿠다 전 관방장관(71세)은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실시된 총재선거에서 경쟁자인 아소 다로 간사장을 제치고 제22대 총재에 당선됐음.
 - 후쿠다 신임 총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재 지명선거에서 총리에 당선됐음.
 - 그는 야당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테러대책특별법 처리, 연금 재원이 될 소비세 인상문제, 지방과 도시의 격차 해소 등의 난제를 안고 있음.
 - 그가 온건한 대북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어 기존 고이즈미 및 아베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변화가 예상됨.

☀ 동북아연구실 제공